

6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5.6.19.(목) 오후 2시,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구종상 위원장, 최은수 부위원장, 이경화, 김광석, 전계순

김병수, 백명희, 박세진, 임태순 위원 9인(안서연 위원 서면 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부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구종상 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습니다. 6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제보영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게시하는 등 시청자의 참여 유도에 있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보된 영상이 따로 목록화되어 시청자들이 자신의 참여가 반영되었다는 희열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구조로 이는 자연스럽게 다시보기를 통한 체류시간 증가와 시청자의 충성도 향상으로도 이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청자 참여의 흐름이 홈페이지 전체 디자인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제보·문의·피드백 창구가 메인 상단에서 잘 보이지 않아 참여 진입장벽이 존재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상단에 '시청자 제보'나 '의견 남기기'와 같은 메뉴를 고정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뉴스 속보 접근성 개선과 이슈 큐레이션 강화, 연합뉴스TV는 24시간 뉴스를 전달하는 속보 중심 매체이지만, 웹사이트 첫 화면에서는 실시간 뉴스에 대한 가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접속했을 때 몇 분 전 뉴스, 또는 방금 발생한 속보가 눈에 띄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최신 뉴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사 섹션으로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속보성'이 핵심인 연합뉴스TV의 강점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홈페이지 최상단에 '실시간 뉴스 한줄 요약' 또는 속보 전용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시청자 제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도국내에 제보팀이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영상의 경우는 활용을 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보팀 만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시청자 제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작업에 제보 메뉴를 메인페이지 오른쪽 최상단에 고정으로 배치하여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뉴스에 대한 가시성을 고려하여 기사 섹션별로 최근 뉴스 확인메뉴를 기획하여 최근 홈페이지 개편때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방금들어 온 최신뉴스들도 메인페이지에 배치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속보성 뉴스들에 대한 접근을 고려하여 뉴스 푸시기능 등을 추가 개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의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은수 부위원장

대선방송은 균형감, 출구조사 보도 합격점, 공중파 출구조사 결과 보도 통해 잘 대처하였습니다. 개표상황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과 스튜디오를 한 화면에 띄워서 4원 생중계를 함으로써 현장 분위기 사실감 있게 잘 방송하였습니다. 선거방송 구호 역시, 대선 2025 선택, 우리의 내일, 타이틀 선정 잘하였습니다. 또한 광고 시간대에 현재 시간과 함께 뉴스 타이틀 스크롤링은 정보성이 가미돼 [시간표출]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광고 끝날 때 언제 본방송이 시작되는지 카운팅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이 없는 듯. 나올 경우, 나오지 않을 경우 기준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대선방송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7월부터 한 3개월에 걸쳐서 스튜디오를 지금 이 노베이션을 할 건데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화면 디자인도 같이 지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TV 만의 어떤 독자적인 그런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번 3개월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서 저희 정체성을 살리는 자막과 우상, 좌상 타이틀이라든지 각종 시간을 알려주는 문제라든지 모든 걸 포함해서 이제 연구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일부 정리가 안 돼 있고 조금 뒤죽박죽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바로잡아가고 연합뉴스TV만의 어떤 정체성을 전체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가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현장잇슈' 창문에서 자라나는 쓰레기들. 완전히 깨진 창문밖으로 종이와 합판 등 쓰레기들 휘날려 집 전체가 쓰레기 더미로 감겨있는 영상입니다(5.8).. 우리 주변에서 가끔 경험하는 일이라 이웃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현실에서 필요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우울한 이웃으로 말미암아 해당 지역주민 전체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기사의 구성을 보면 한 차례의 공문발송, 설득의 과정 소개, 소유주의 동의 없이 보건소 진단이 어렵다는 사실과 법과 제도의 허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일회성의 형식적 사회문제 지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류의 기사를 읽어보면 복지기관의 책임의 한계. 쓰레기로 지역민에게 피해를 가하는 인물이 복지대상자가 아니라 추가 접촉은 불가하다는 행정편의적 대응으로 일관할 뿐 지역주민 전체의 환경적 안전에 대한 처리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우울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질문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의 현실화 및 정착화 언급하는 내용까지 다루어주시길 바랍니다.

- 슬기로운 생활뉴스(2025.6.10.)는 참신한 제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주택자 줍줍 희소식, 제주단체관광객 3만원 교통비지원, 수산물할인행사, 서울도서관 전국민 도서대출 등 4가지 소식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호기심과 관심을 주고 있어서 유익하였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개인의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소소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온라인 알바 관련 정보, 신종 직업군 안내 기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먼저 말씀해 주신 '현장잇슈' 창문에서 자라나는 쓰레기들, 저희가 유튜브용으로 만든 현장성이 강한 콘텐츠인데요. 저희 디지털뉴스부의 신선재 기자가 현장에 두 번에 걸쳐 갔습니다. 이 상황을 살펴보고 이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또 주민들 피해는 어떤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했는데 콘텐츠 자체가 보셨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상당히 볼만한 그런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언론에서 이런 류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후속으로 과연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이 가능한 건지, 다음에 보도할 과제로 저희가 삼아서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슬기로운 생활뉴스'는 저희 오후에 '뉴스잇'이라는 프로그램에 있는 코너입니다. 여기서 아마 가끔씩 종종 눈에 띄는 그런 일상경제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슬기로운 생활뉴스' 말고도 '경제썩썩'이라고 매일 이렇게 좀 가벼운 민생 뉴스를 다루는 그런 코너가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생활정보 성격이 담겨 있는 경제뉴스들 다양한 코너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석 위원

- [경제읽기] 10년 전보다 전 연령대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 ↓, 약 15분 정도 방송된 '김대호의 경제읽기'는 시청자들에게 국내 및 세계경제문제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방송된 내용은 국내 소득대비 소비지출이 줄어들었고, 특히 60대의 소비지출이 가장 많이 줄었다는 내용을 보면서 60대인 제 입장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 같아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이 5분 정도 방송하였고, 10분정도를 미국 관세문제에 대해 방송을 하였는데, 국내 소비지출이 줄어든 내용에 대해 김대호 박사가 언급한 것 외에 연합뉴스TV 경제담당 기자의 리포터도 함께 방송하여 국내 소비지출이 줄어든 여러 가지 사례 및 분석을 몇 꼭지 더 하였으면 시청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방송 포맷과 방송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기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가능하다면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언급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신채널! 삶의현장] 마음 놓고 쓰러져도 되는 곳?...쓰러지기 직전까지 직접 굴러봤습니다 최근 서울 신당동 봉제공장 화재에서 소방관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소방관이 되고자 하는 신입소방관들이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교육을 받는 것을 보면서 외국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들의 희망하는 직업선호도 중 소방관 직업이 상위를 차지하는 반면에, 우리 사회에서 소방관은 박봉에다가 근무조건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은 바, 이번 방송을 통해 소방관의 직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위험도 무릅쓰고 일하시는 전국의 소방관님들과 그 가족분들이 사명감과 자존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음지에서 일하시는 많은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직자들의 미담이나 공로에 대해 연합뉴스TV에서 앞장서서 방송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기자의 소방교육체험도 감명 깊었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김대호의 경제읽기'라는 코너는 언론인 출신의 경제 전문가인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문제를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괜찮은 전문가 패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너 디자인 자체가 리포트가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고 어떤 사

안을 놓고 김대호 박사가 앉아서 쪽 쉽게 설명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마도 국내 소득대비 소비지출 그렇게 심층적으로 다뤄지지 못했을 테고 한번 언급하는 정도 수준으로 조금씩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아이템 자체가 저희 방송에서 다루기가 참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추후에도 더 다뤄볼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 '정신채린 삶의현장'이라는 코너는 저희 유튜브 콘텐츠인데 저희 이름이 안채린이라는 기자가 하는 건데 그래서 '정신채린'입니다.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고요. 안채린 씨가 소방관 일일 체험을 해서 제작했습니다. 어쨌든 국가적인 각자 맡은 바 소명을 다 하고 일하는 이런 직업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좋은 사연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순 위원

- 메신저로 마약 거래...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심각,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0만7,519건의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마약류는 전체 적발 건수의 31.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이었고, 주로 메신저(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와 SNS를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메신저에서 적발된 2만1,990건 중 대부분인 2만1,986건이 마약류 불법 유통이었습니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당히 심각한 수치로 남의 나라 이야기 인줄 알았던 불법 마약 유통 및 이용자 증가는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관련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소비자 상담 접수 처리 건 중에 식품 및 의약품 관련 상담을 기반으로 매월 상담 추이를 분석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은 온라인을 대상으로 식품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에 개선 요구 등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의약품 광고 및 구매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부적합한 식품 및 의약품이 국내의 안전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과정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도 다양한 카테고리의 광고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는 향후 마약류 불법 거래 적발 시 게시물 삭제뿐 아니라 메신저 아이디 사용 중지 요청 및 사업자 대상 가중처벌 조항 검토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했습니다. 연합뉴스tv 에서도 보도 전문 채널로서 국민들의 식품안전과 마약 문제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민 안전을 위해 이슈 포커싱 해주시를 바랍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올해는 계엄 터지고 나서 저희가 정치 뉴스 외에 다른 뉴스를 많이 줄이는 바람에 이런 기획을 잘 못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연중 기획 수준으로 많이 다루었어요. 그때 저희가 여러 수사 당국과 같이 현장 출동도 많이 하고 현장 적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다뤘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정치 이슈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다룰 여유를 좀 놓쳤는데 사실은 이런 마약 문제라든지 식·의약품 불법 유통이라든지 이런

저희 삶과 닿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 연합뉴스 TV 스페셜 : 무료 배달의 뒷, 배달수수료의 두 얼굴 >,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일상이 된 요즘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배달수수료는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입니다.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의 파워가 커지면서 플랫폼 사업자들간의 경쟁심화로 회원 확대를 위한 무료배달제 도입 등을 시도하면서 과거와 달리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배달수수료 비율이 더욱 증가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행 배달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코자하는 동 프로그램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내용에서 보듯이 11,000원짜리 돈가스를 하나 판매했을 경우 남는 수익이 2,992원이지만 이는 인건비랑 임대료를 미반영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상태라는 보도를 보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배달시장의 성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배달시장의 성장이 배달시장 경제주체 중 어느 한 경제주체의 부담으로 성장한다면 그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자영업자는 최상의 제품(서비스)을 제공하고,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는 적절한 중개수수료를 취하고, 소비자는 최고의 제품(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소비할 때 지속가능한 배달시장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지만 경제적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담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 또한 불가피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배달수수료와 관련, 배달시장 관련 경제주체들(자영업자, 소비자, 배달앱 플랫폼)과 학계 및 국회측 의견은 방송에서 다뤘지만 경제주체들간 이견을 조율하는 정부부처(공정위)의 의견에 대해서는 방송취재에서 빠져 있었던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행히도 방송 이후 정부도 조만간 발표할 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배달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입법화(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발표한 만큼 앞으로도 경제적 힘의 우위를 이용해 열위한 경제주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배달수수료체제로 전환되지 않도록 배달수수료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배달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고통을 주고 있기에 이슈화 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실태가 어떤가를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스페셜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좀 다뤄봤던 건데 전체적으로 잘 다뤘다고 생각되지만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일부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 하긴 한데요. 저희가 오늘 아침 뉴스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 서비스 업체가 만 원 이하의 물건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걸로 여권하고 서로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나온 뉴스를 조금 전에 보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장 눈에 띄는 뉴스더라고요. 저희가 이 뉴스를 좀 푸시해서 강하게 오늘 다루고 앞으로도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유도해낼 수 있도록 저희 보도 채널인 연합뉴스TV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더 광범위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앞장설 생각입니다.

▲ 구종상 위원장

안서연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안서연 위원(서면 제출)

- [썬속뉴스] "역겨운 조센징들" 한성대에 전시된 피가 거꾸로 솟는 전시물...현충일 앞두고 '논란', 현충일을 앞두고 위와 같은 전시물은 매우 부적절하고 보도가치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인 대학생의 일탈로 보이는데, 해당 대학교 실명을 언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서경덕 교수의 SNS에 게시한 것을 보고 본 건 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SNS에는 특정학교를 기재할 수 있어도 언론에서 이를 학교 이름 보도, 영상으로 방송, 제목에 기재하는 반복하여 이를 보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LA 시위, 샌프란시스코·시카고·워싱턴 등으로 확산 조짐...美 당국 촉각 | LA 도심 집회 금지 LA시위의 모습 및 특파원 연결, 체포된 자의 자녀가 연설하는 모습 등을 취재하여 현장감 있게 보도하였습니다. 민주당 잠룡 뉴섬 주지사와의 역학관계도 설명하여 준 것은 특히 의미 있었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유튜브에서 만들었던 조그만 작은 영상인데 여기에 한성대라는 이름이 공개된 게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부적절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 콘텐츠를 조금 일단 보류를 시켜놓고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너무 한 대학교에서 조그마한 전시물 하나가 좀 자극적인 전시가 달린 건데 이거를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다룰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서경덕 교수 SNS에 게재한 걸 가지고 아마 만든 것 같은데 너무 자극적인 뉴스들이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사를 내리면 어떻겠냐고 해당 부서에 얘기를 했고 아마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현장에 밀착하고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백명희 위원

- [썬속뉴스]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로 본 지난 6개월...시간없으면 이거만 보세요, 6월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 성격인 '국민의 말씀'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앞세웠습니다. 이 보도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 일어났던 12.3 계엄, 탄핵 등 지난 반 년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든 일련의 사건들을 집약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4분 정도의 시간 안에 적절한 영상들을 잘 배치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 번에 쉽게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목 중에 '시간없으면 이거만 보세요' 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않은 것 같아서 '이재명 대통령~ 지난 6개월 간단 요약 해드립니다' 또는 '핵심 정리 완결'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떨지 제안 합니다. 그럼 시청자들의 시선을 더 쉽게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뉴스프라임 [이슈5] 토니상 거머쥔 '어쩌면 해피엔딩' 브로드웨에서 새 역사, 2025.6.9.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토니상에서 6관왕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국내

에서 초연된 작품이 공연계 최고 권위의 토니상을 받은 것은 처음인데 작품상, 극본상 등주요 부문을 석권하며 한국 뮤지컬계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소위 말하는 K팝, K드라마 뿐만 아니라 K뮤지컬도 외국에서 흥행하는 것은 물론 작품성까지 인정받는 것을 보니 한국 문화의 저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 작품은 2016년 대학로 소극장에서 초연했으며 지난해 11월 브로드웨이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뮤지컬을 보러갈 때 티켓 값을 고려하여 흥행이 보증된 작품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웨이 작품 위주나 한국 창작 뮤지컬 중 대작 위주로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사를 통해 최근의 한국 창작 뮤지컬의 작품성이 이렇게 뛰어난 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어쩌면 해피엔딩'이 한국에서 6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그때 꼭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화제성 있는 보도는 계속 팔로업 해서 발빠르게 정보 제공 부탁드립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썬속뉴스'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로 본 지난 6개월...시간없으면 이거만 보세요 제목 말씀 하셨는데 어떤 제목이 더 좋을지 팀원들과 논의해보겠습니다.
- 이번에 토니상은 엄청난, 한강 노벨문학상 타는 거 이상으로 못지않게 아주 큰 상이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계속 며칠 보도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우리 K-문화가 다방면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약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빨리도 보도해야 되지만 또 심층적으로 또 품위 있게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세진 위원

- 다시 '청와대 시대' 온다...관람은 언제까지? 2025-06-04 17:42:26
- 청와대 탐방로 전면 보수작업 시작..."예정됐던 일정" 2025-06-05 12:59:07
- 집무실 복귀 앞둔 청와대...6월 방문 예약 줄이어 2025-06-05 21:09:43
- [뉴스핫픽] 기로에 선 청와대 개방 2025-06-05 14:34:02
- [날씨] 주말 맑고 최고 33도 더위 ...자외선·오존 주의 2025-06-07 14:52:41
- 대선 이후 청와대가 다시 대통령의 공간으로 복귀할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해 연합뉴스TV가 청와대 관련 뉴스를 연이어 보도한 것은 시의적절했으며,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기사였다고 평가됩니다. 보도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방침 발표 이후 관람객이 급증하고, 관람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청와대가 문화와 관광 공간으로 자리잡았던 지난 2년의 변화와 앞으로의 상징성,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균형 있게 소개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내부 배치와 참모진 사무실 재배치 등 복귀 준비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도, 기상 보도나 뉴스핫픽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청와대 이슈를 입체적으로 조명해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보도를 이어갔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연합뉴스TV의 접근은 단순한 이슈 전달을 넘어, 문화·관광·정치 등 다양한 각도에서 청와대의 변화와 의미를 짚어보며 시청자 중심의 보도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 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 북한 행동에 달려" 2025-06-09 14:16:53
- 새정부 출범 뒤 입장 선회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유감...강력 중지 요청" 2025-06-09 22:40:35
- 지난 6월 9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통일부와 국방부(합참)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점이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통일부는 기존의 소극적 태도에서 선회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강력한

중지 요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방부(합참)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권 초기 정책 방향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별 입장 차이가 발생한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북한 문제와 같은 안보 이슈는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 부처 간 조율, 그리고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정부 내 입장 차이가 신속히 조율되어 일관된 메시지와 정책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쟁점 사안에 대해 연합뉴스TV가 정책의 방향성과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까지 짚어주는 심층 보도를 해줌으로써 관련 사안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높여주길 기대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청와대로 다시 대통령실이 복귀한다는 거는 큰 뉴스죠. 청와대 관람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 제공 차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 뉴스였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적절히 보도했다고 봅니다. 청와대의 보수 및 이전 입주 시점은 국가적 이슈이자 관심사임과 동시에 종로 일대와 용산 주민들에게는 재산권 및 생활편의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도 주의 깊게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통일부와 국방부 간의 입장 차이는 아무래도 부처의 어떤 목표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초반에 아마 서로 다른 입장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처 간의 입장 차이 이런 거를 다루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틀 정도 지나서 국방부가 입장 조율을 한 상태에서 입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통일부와 비슷한 입장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 보안과 안보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임태순 위원

연합뉴스TV가 6월 5일에 보도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수준의 감독 착수」를 시청하면서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언론의 공적 역할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보도는 한 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약속한 부분을 정확히 전달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도 유사한 비정규직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연합뉴스TV가 위험의 외주화 문제, 안전 관리 책임, 제도적 미비점 등을 심층적으로 다뤄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2인 1조 작업 원칙 법제화”와 같은 구체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조명해주신다면, 정책 변화를 촉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연합뉴스TV가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보도를 이어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는 특히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라든지 식·의약품 불법 유통 이런 유해 안전을 비롯해서 각종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는 언론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종상 위원장

혹시 부족하거나 빠뜨린 게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6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